

주의 세례 축일

기도서 P. 239

- 제1독서(이 사 42, 1-4, 6-7)
- 제2독서(사 도 10, 34-38)
- 복 음(마 르 1, 7b-11)

숲 정 이

발행 원 인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집 사 사 목 국
 인 쇠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천주 교구청
 ☎ ⑤ 5098 ③ 3201

강론



세례자(洗禮)

법 석 규 신부

세례라는 말을 크리스찬이 느끼는 의미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받은 신앙인으로서 “나는 본명이 있는 신자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비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선 상쾌한 일입니다. 온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 입었을 때 상쾌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달리 보아주고, 본인은 더욱 새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크리스찬 생활은 외적인 세례의식을 통하여 내적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가장 지저분한 때로 온 몸이 뒤덮혀 그 때를 씻지 않고는 숲을 제대로 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묻은 온 몸을 세례의식에 의해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묵욕한 상쾌한 몸에 새 옷을 갈아입듯이 세례의 전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이후 새 사람이 해야 할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반성해 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았다면 하느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살핍시다.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너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오25, 31~46)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느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성심 여자 고등 학교장>



개 해 에

사람을 잘 따르고 성질이 온순하며 영리한 짐승이 바로 개다. 개는 또한 냄새를 잘 맡고, 귀가 매우 밝으므로 도둑을 잘 지키며 사냥과 군용으로 쓰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는 사람에게 매우 쓸모가 있는 짐승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욕된 표현의 하나로 개라는 말을 자주 쓴다. 개새끼, 개자식, 개말년, 개불상놈 등이 바로 그러한 낱말들이다.

못된 짓을 하는 도둑(人間)을 지키는게 개이고 보니,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을 아예 개의 새끼로 치부하자는 뜻에서 나온 표현일 것이다. 금년은 개의 해이니 그런 욕설을 먹어서는 안되겠다.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 함은, 내일을 바라보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젊음에 산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 고달프더라도 항상 슬프게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일같은 폴란드 사태이지만, 그들에게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 모아 기도하는 연유가 바로 그 꿈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큰 뉴스가 잇달았다. 통금해제와, 종교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가 바로 그것들이다. 당연히 외야 할 일들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늦어졌던 일들이다. 작년에 해성고등학교에서 교모를 벗었을 때, 그들의 친구인 타교생들은 해성고교생들이 더 단정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랐다. 그들도 모자를 벗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어른들은 짜증섞인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틀에 갇혀서 살아야 할, 꿈없는 한심한 어른들이 아닐 수 없다.

금년에는 바른 소리가 개소리 취급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개꿈꾸는 사람들도 없어야 하겠다.

숲 정 이 산책



당신도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평화의 날 메시지



平和는 우리에게 말길 주의 선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이 평화는 언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2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한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금년도 주제를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길 선물」로 정한 교황은, 평화가 선물이지만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한번도 평화 추구의 의무에서 면제된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평화가 양치되는 물질적 이익의 표면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즉 양이나 사물의 질서에 속하는 그런 균형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평화는 그 가장 깊은 내심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질서에 속하는 인간 주체의 질서」라고 교시했다.

「평화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지니며 진리와 덕행의 결실」이라고 밝힌 교황은 바로 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는 존재의 첫째가는 근원이며 본질적 진리요 최고의 신인 하느님의 진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곧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실파했다.

교황은 또 「인간 행동의 거의 모든 면은 평화를 촉진하는 예기치 않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평화의 촉진은 그에 관한 정보나 연구외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한 모든 중대한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힌 교황은 크리스찬들이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의 열성적인 증인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신자들이 「지체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그들 자신의 분열을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교황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그의 평화를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우리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세우게 하소서.」

또한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간구를 요청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거라고 천명했다.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느님의 포도밭에 초대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달아들어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들은 누구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어서 나오십시오.

지난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거센 파도와 맞섰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들은 있었습니니다. 교회가 세상일에,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단 하나, 험뵈고 깃잡힌 그리스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합하고 두 손들을 모았습니니다. 사제교수도자교도 평신도의 구별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제들은 평신도의 가정을 격려해서 대신 매를 맞았고, 평신도들은 빛전에 서나마 뜨겁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손들을 맞잡아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낱씩도 모았습니니다.

이러한 70년대의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기에 애써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형제 자매들, 특히 종교와는 멀게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 들었습니니다. 서울의 어떤 성당은 예비자 교리반이 24반이나 되는데도 찢절매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니다. 하느님이 갠아주시는 보상입니다. 광주도 그러하디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젊은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특히 이 땅에의 복음전파 200주년을 앞둔 지금, 전 한국교회는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교구설립 15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들은 평신도들의 능력도 보았습니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니다. 가능성을 엿본 것이니디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아직도 구경꾼처럼 행세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처신해야 할 때입니다. 빛전에 서 계시지 말고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십시오.

지금은 분당 공동체의 해입니다. 이거야말로 어느 누구 하나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할 일입니다.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재물의 있고 없음이 장벽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웃과 서로 어깨를 함께 하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하느님 품에 모인다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제와 수도자, 사도회를 중심으로 머리와 심장을 마주해 봅시다.

꽃! 꽃! 꽃! 꽃다발
—푸르실리스타—
(센타에서 직접 제작, 판매 봉사)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6228
범띠도(떡배) · 이따리아

주단 · 포목(훈수 · 회갑옷갑) 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펫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킹엄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③ 4451
유 율 리 안 나

ECCLESIA

□ 사제 인사 발령 □

교구 참사회는 1월 6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제 인사 발령을 했다.

1. 사제 인사 이동

성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성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안용기 신부	필리핀사목연수	주현동 주임	한봉섭 신부	미국교포사목	장계 주임
성태수 신부	사목국 차장	벨기 유학	소순형 신부	주현동 주임	한들 주임
김준호 신부	장계 주임	사목국 차장	범영배 신부	한들 주임	창인동보좌
전중복 신부	로마 유학	광주교구과전	박성팔 신부	노송동 보좌	월명동보좌
김희남 신부	군중 입대	복자 보좌	서광석 신부	로마 유학	김계 보좌
유영도 신부	군중 입대	덕진 보좌			
박찬길 신부	창인동 보좌	새 신부	안철문 신부	덕진 보좌	새 신부

(2월 2일 서품예정) (2월 2일 서품예정)

2. 교구 단체 지도 신부 임, 면

교구 어린이 전교회...명, 배영근 신부(신규)
 가톨릭 농민회 교구연합회...명, 정평위 회장 신부 면, 박창신 신부
 교구 빈첸시오회...명, 인성회 회장 신부 면, 이종원 신부
 교구 매스콤 및 UNDA KOREA...명, 성태수 신부 면, 김준호 신부
 교구 M. B. W 추진회...명, 조정오 신부 면, 김준호 신부

3. 사목국 교육 연구 업무 쟀타 기관

교구 사목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연구 지도를 위해 사목국의 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주선, 추진업무를 가톨릭 쟀타 관장에게 이관키로 했다.

□ 덕진본당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발족

교세가 날로 커져가는 덕진 본당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쑀미씨움'의 승인을 얻어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지도신부 서석기)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파티마 본당의 「로사리오의 모후」 꾸리아에 소속되었었는데, 80년도에 6개였던 쑀레시디움을 1년만에 13Pr. 으로 늘려 오늘의 영광을 맞게 되었다. 현재 2개 Pr. 이 신설 준비중에 있으며 82년도말에는 20개 Pr. 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제 1월 10일 오후 2시에 제 1차 월례회가 덕진성당에서 김용환(요한) 단장 주제로 열린다. 우리 다 같이 성원의 박수를 보내며 전도 축복을 빌어드리자.

□ 팔마본당 년초부터 나환자 돕기 시작

군산의 팔마본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는 예년에 이어, 나환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지난 1월 3일부터 시작했다.

작년엔 다량의 옷가지를 모아 경남 산청에 위치한 「성심 인애원」의 형제들에게 전했다는데 올해는 그곳의 요청에 의하여 간단하지만 요긴하게 쓰여질 현책과 신문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소형 버스 반 차량분을 수집했는데 이를 위한 교우들의 참여는 대단하다.

꾸라주임(금년은 1월 31일)이 되어야만 관심을 기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차체에 다른 본당들도 체계적으로 더욱 알찬 이웃돕기 사업을 가득 전개해 주시길 빌어본다.

요심이 (440) 김병오

개각을하여 24명의 각료... 명단이 발표되었구나



경산도출신이 11명으로 46%이교...



전라도출신은 2명으로 8%이니



전라도에는 인물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없구나!



코오롱 맨☆스타 전주특별점

30%~40% 정기세일
 1월 8일~1월 17일
 바바리 코트·콤비
 40% 할인
 기타 전 품목
 30% 할인

전주시 중앙동 3가 26(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②4561
 아드리야노(金敎中)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비오)

□ 축! 개업

일 시 : 1981. 12. 15 09시

숲정이 슈퍼마켓

전주시 진북동 1159-5
 진회주문 배달함(숲정이성당 앞)

전화 ③ 3 5 5 0

김원겸(시릴로)·박효송

훈수웃감·회갑웃감·파티복
 밍크담요·수예품·맞춤이불전문

한 일 웃 감

전화 ② 7 2 0 3

전주시 진동 3가
 시내버스 남부배차장 옆
 吳 共 千(도밍고)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평협 제7차 정기총회: 일시-1월 16일<토> 오후 2시30분~17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5,000원(1인당), 참가대상-① 본당 사도회 대표 1~2인 ② 교구단위 액션단체 대표 1~2인
2. 중·고연합회 정기총회: 일시-1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대상-각 분당 학생회장단, 총무, Cell 의장
3. 중·고생 동계목상회: 일시-1월 27일<수> 오전 9시30분~28일,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도구·노트·세면도구
4.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1월 19일<화> ~22일<금>
5. 합일분당 전화번호 변경: ① 0065

(중앙)

① 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인
 보좌 신부 박인광
 사도 회장 박광문

1. 성경읽기: 사무엘 상 1장~9장, 마르코 1장~2장
 2. 꾸리아 월례회: 10일<일> 오후 2시 강당
 3. 애령회 총회: 13일<수> 오전 11시 회합실
 4. 자모회 월례회: 16일<토> 오전 10시 강당
 5. 주일학교: 31일까지, 오후 2시30분-성가연습 3시-미사
 6. 금요 통신성서 개강: 8일부터 실시중 기준반-낮11시 강당, 밤7시30분 2층 예비자 교리실 신실반-밤 7시30분, 강당
 7. 청년성가대 정기총회: 17일
 8.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불집수: 10일부터~24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602,197원 구유현금: 155,725원
 정로사리아 감사현금: 20,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이홍재

1. 예비자를 봉헌합니다: 2월 첫주부터 교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신자는 예비자를 안내하여 봉헌합니다
 2. 교무금을 신입합니다: 아직 신임을 안하신 분은 속히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베소라 성서강의: 12일<화> 저녁 7시~9시까지
 4.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감사합니다: 김종인(안토니오)께서 석유난로 3점을 기증하셨습니다
 7. 구정합동 위령미사 봉헌: 먼지가신 선영들을 위해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50,87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도
 보좌 신부 유영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꾸리아 창립총회: 오늘 오후 2시 각 Pr. 단원 및 협조단원 전원 참석
 2. 반석회 월례회의: 공식미사 후
 3. 미사에 빈손은 아니신지요 성서·성가집 기도서를 꼭 지참하세요
 4. 미사에 늦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5. 주일 공식미사는 부모님들께서 책임을... 중·고생 오전 9시미사, 주일학교 어린이는 3시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6. 각 분과위원장님께서는 82년 특별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7. 봉헌금 신입은 본인이 반장님께 신청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400,6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합니다 성서·기도서·성가책 지참
2. 애령회 월례회: 11일<월> 어머니미사 후

3. 81년도 봉헌금 미수 속히 완납 바람
 4.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정동민, 정경신)
 5. 학생회 임원개편: 회장-김관수(요셉) 부회장-이성조(베드로), 부회장-조복희(젬마)
 6. 다음주 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479,88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각 단체장 인사: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회합: 공식미사 후
 3. 할머니회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17일(일요일)부터 실시
 5. 성서교리: 다음주 수요일(13일) 저녁미사 후
 6. 성심부녀회: 11일 오후 2시(송젤마세 맥)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장춘 ②한형수
- 지난주 봉헌금: 247,775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월례회: 10일 공식미사 후
 2. 누골다 부녀회원 피정성공: 11일 9시 정가 피정신부님 초빙, 부녀회원 아닌 형제자매님들 누구라도 많이 참석 바랍니다
 3. 성서 40주간 연구: 12일 오후 2시30분
 4.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 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월성서연구 뜻있는 분 참석 바랍니다
 5. 미사 참례자 안내: 제4조-최옥순·조금주·박봉자·정부주·교젤마·임요안나
 6.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김경주·박병열, 기도-이철수
- 지난주 봉헌금: 439,430원

(전동)

전화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장우회·자모회: 공식미사 후
 3. 신축기금 헌금: 옥좌샘 1만원 감사합니다
 3. 81년도 미납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4. 사도회 전 임원님을 2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장금래, 재경부장-박순기, 선교부장-고수창 감사-김종오·유종현
 5. 레지오 간부 모임: 11일 오후 7시, 사제관
- 지난주 봉헌금: 552,16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덕진분당의 자비의 모후 꾸리아 탄생을 축하합니다
 2. 신년교례회(1월 1일): 130명 참석 ※ 교우들은 사도회 결의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3. 호성동 갱생원 방문 예정: 17일, 헌옷을 수집합니다
 4. 각 분과별 회합: 2월부터 매주일마다
 5. 부활절 영세 위한 예비자 교리반에 적극 참여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01,050원 교우금: 190,000원